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드리는 글 -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 -

‘성공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덕담으로 이 말을 해 주었으나 저는 한 번도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참으로 싫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누가 실패한 대통령이라거나 국정 실패라는 말만 하면 논란거리가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웠으나 다행히 이제 한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이 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당적을 정리한 대통령이 왜 자꾸 정치에 대해 얘기하느냐고 합니다. 지지율이 좀 올라 교만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절박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지지율이 한 자릿 수까지 떨어졌다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성공하는 것 말고 정치인 노무현이 무슨 다른 꿈이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열린우리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한 전직 기자를 만났더니 그 기자가 당선인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 직후 저를 인터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 저에게 물었더니, 저는 한 30초나 생각하고 나서 “정-계-개-편” 이 한마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도 잊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까? 1987년 통일민주당의 분열과 1990년 3당 합당으로 일그러져 버린 한국의 정당 구도, 그 이후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매달려 왔던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이것이 정치인 노무현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굳이 저만의 소망이었을까요? 목이 터져라 국민통합을 외치고 박수를 치던 지지자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말한 정계 개편은 그동안 우리 정치에 자주 있어 왔던 정계 개편과는 그 뜻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국회의 다수를 만들기 위하여 원칙 없이 편의에 따라 정치를 왜곡시킨 그런 이합집산이 아니라 일그러진 우리의 정당 구도를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정치를 정치답게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이 표류하고 있으니 정치인 노무현의 꿈이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인 노무현의 꿈이 표류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의 대의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8년 4월 총선에서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야당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냥 공약의 하나로 내건 것이 아니라 핵심 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연설 때마다 외쳤습니다. 그 결과 13대 국회 시절은 초반부터 야당 통합이 언론과 국민의 화두가 되었고, 양당의 일각에서 통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통합이 물 건너 간 후에도 영호남 정치권의 통합은 끊임 없이 논의되고 시도됐고,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를 규탄하는 언론과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역사의 대의가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개혁과 통합'을 대표 구호로 내세웠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승했습니다. 역사의 대의가 아니고 어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고,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사람들의 결단은 정치 생명을 건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창당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1985년 2·12총선을 앞두고 한 신민당 창당 이래 없었던 결단이었고, 동원비 없이 치러진 전당대회는 우리 정치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만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탄핵사건 이전부터 열린우리당의 지지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결단과 참여의 결과입니다. 탄핵사건이 아니었다라면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옳은 가정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역사의 대의에 기초한 결단이었고, 우리 정치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이 오랫동안 흔들리고 표류하더니 이제는 와해 직전의 상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을 깨고 나갔습니다. 남아 있는 대선주자 한 사람은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 사람은 당의 경선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통합신당은 무슨 당입니까? 과

연 지역당이 아니고 창당 선언에서 다섯 번이나 강조했던 국민통합당이 맞습니까? 통합신당이 무슨 당이든 당신들이 하는 대로 하면 과연 통합신당이 되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 창당의 정신에 맞는 일입니까?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에서 당신들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한 목소리로 창당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선언문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말로 시작하여 국민 통합과 정치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쪽 정도의 내용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이 다섯 번씩이나 나옵니다.

과연 당신들이 이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태 정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당을 깨고 만들고, 지역을 가르고, 야합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정계 개편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 당 저 당을 옮겨 다니던 구태 정치의 고질병, 당신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청산을 약속했던 그 구태 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어려우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할 가치도 없다 싶으면 그냥 당을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창당정신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남아서 노력이라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깨려고 합니까?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 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것은 뚜렷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잔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분석과 수읽기, 거기서 나오는 잔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런 것에 기대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보고 대단한 전략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치밀한 분석과 수읽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노무현은 그렇게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이고,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기 시작할 때 참모들 중에는 몇 년 후에 있을 대선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타결이 된다면 대선이 치러지는 2007년에 타결이 될 텐데, 열린우리당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들이 떠나고 내부가 분열되면서 대선에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을 듣고 보니 대통령도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노심초사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지지층이 떠난다고 할 때,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모들에게도 내색은 못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만일 대선의 유·불리를 놓고 복잡한 분석을 하고 수읽기를 했다면 아마 적당한 명분을 찾아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국민을 믿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복잡한 분석과 수읽기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정치인 노무현의 갈 길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은 정치인 노무현이 지난 20년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일관되게 매진해 왔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도 간절하여 정치적 목표를 넘어서 삶의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죄가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당을 나간 사람들이 대통령의 실패를 말하고 당에 남은 일부 사람들이 또 당을 나갈 것이라 하여 황급히 당적을 버렸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지만 당을 위해서 소신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당을 해산하자고 하고 당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국민에게 약속해 온 국민통합과 정치 개혁이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좌절이자 절망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를 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에게 간곡히 충고드립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대의를 높이 받들고 원칙을 좇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치와 노선에 따라 당을 같이하는 것이고, 각 당은 그 가치와 노선에 맞는 후보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에서는 당과 후보의 가치와 노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실사 가치와 노선이 맞아서 통합신당을 하더라도 당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 당을 먼저 해산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서고금에 그런 통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을 해산하고 누구와 통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당에 입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당을 해체하지는 것은 희생양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는 모른다.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열린우리당 해체는 곧 열린우리당의 존재 의미, 창당정신, 그 역사가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좌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국민 통합과 정치 개혁의 맥이 좌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당적을 정리했지만 우리 정치에서 통합주의의 맥이 끊기고 지난 20년 정치인생 내내 쌓아 온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명일 뿐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진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저는 지역 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고, 개인적으로는 당을 정비해서 가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중진들과 대화를 해 보니, 당의 다수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해 그 흐름을 존중했습니다. 지도부가 당의 공론을 모아서 질서 있게 추진하는 통합이라면 어떤 통합이든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당적마저 정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명이나 형식을 고집하고 이대로 사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합을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과 역사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든 통합이든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은 제 생각과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그것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의 원칙입니다.

만일 제가 당원이라면 제 의견과 다른 결정이 내려져도 그것이 규칙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면 결정된 바에 따라 당원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을 통째로 이끌고 지역주의 정치에 투항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걸림돌이

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저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위해 영남신당을 만들려고 한다' 고 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통합에 반대한다고 말을 만들어 내는 듯합니다.

한마디로 모함입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상은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고수해 온 정치인 노무현의 원칙이나 실제 정치 행위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정치를 망쳐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피해를 가장 처절하게 체험한 정치인이 노무현입니다. 아무리 정략적 모함을 하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 노무현이 살아온 정치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모함은 그만두길 바랍니다.

지역주의는 나라 정치를 망칩니다. 지역 정치는 경쟁 없는 정치를 만듭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는 정치의 품질을 낮추고 정치를 부패하게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공천헌금이 그 증거입니다.

지역 정치는 호남의 소외를 고착시킬 것입니다. 호남-충청이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지역주의 연합론은 환상입니다. 상대가 분열하지 않는 한 호남-충청의 지역주의 연합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정확하게 따져 보면 분명해집니다. 현실의 승부에서도 역사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正道입니다. 결국은 정도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선언문, 지금 읽어 보아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 희생과 헌신, 열정이 엉겨 있습니다. 인생을 바쳐 이루어 내야 할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도

도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글을 붙입니다. 이 글은 '대통령 노무현' 이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 으로서 쓴 글입니다.

※원문에는 열린우리당 창당선언문이 붙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생략합니다.